

아름다운 인간성

—피테의 「헤르만과 도로테아」의 경우

송 성 회*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시대적 배경 |
| II. 아름다운 인간성 | IV.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 |
| —힐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V. 맺음말: 아름다운 인간관계 |

I. 머 리 말

세계 정치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프랑스 혁명(1789)은 독일의 문학 발전에 대해서도 역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독일에서는 곱트셰트(Johann Christoph Gottsched) 이래의 계몽주의적인 기능 규정을 토대로 한 비교적 통일적인 문학 발전이 프랑스 혁명의 충격으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그 기반을 더욱 굳히게 되었던 문학의 교육적 가치가 불신 당하게 되었고, 그 대신 여러 가지의 새로운 견해들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크게 고전주의적인 견해와 낭만주의적인 견해, 그리고 자코뱅주의적인 견해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¹⁾. 이들 세 가지 견해는 프랑스 혁명과 독일의 사회상황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코뱅주의적인 견해를 지닌 작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 지지하였고 독일에서의 혁명적 변혁을 시도했다. 낭만적인 견해를 지닌 작가들이나 고전주의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 역시 혁명 초기에는 크게 환영했으나, 프랑스 혁명과 독일에서의 혁명적 변혁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1) Inge Stephan, *Aufklärung und klassisch-romantische Kunstperiode*, in: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Metzler, Stuttgart 1979, S.133 이하 참조.

* 人文大學 專任講師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런데 전자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지 않고 그 대신 문학의 자율성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주관 세계에 회피한 반면에, 후자는 예술의 사회적·교육적 기능을 경시하지 않았던 점이 두 견해의 차이점이었다.

그런데, 고전주의자들이 독일에서의 혁명을 거부한 것은 독일 국민이 정치적·도덕적으로 미숙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뿐, 사회적 변혁 자체는 옹호했으며, 더 나아가 “독일의 시민사회에로의 변혁”을 절실한 요청사항으로 간주했다²⁾. 그러나, 이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원했으며, 문학이 국민을 도덕적으로 향상시켜서 사회적·정치적 변혁이 非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한 대표자인 쉴러(Friedrich Schiller)는 “현대의 정신적 양식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혀나가고 있는 「인간의 美的 교육론」(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1795)에서 인간의 도덕적 개선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³⁾. 따라서, 당시의 현실이나 그 현실 속에 팽배해 있던 갈등 및 모순들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이성의 이상적인 조화를 구현해 낸 ‘고전적인’ 주인공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진정한 도덕적 완성의 모범”⁴⁾을 제시하는 일이 작가의 임무였다. 19세기 초 이래의 사회 발전 과정에서는 물론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개인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 현실 문제가 개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못되었던 사정을 고려해보면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슘뮈디(Peter Szondi)가 “인간 사이의 관계의 재현 만으로”⁵⁾ 구성되어 있는 점이 고전주의 드라마의 특색이라고 본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쉴러의 “아름다운 인간성”(schöne Humanität) 이론⁶⁾과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빌헬름 마이스터」(Wilhelm Meister) 소설 및 「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n und Dorothea) 등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와 함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독일의 응답이라고 조심스럽게 규정되고 있으며, 융성기 고전주의의 진정한 강령인 “아름다운 인간성 이상 및 이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름다운 문학’ 이상”을 매우 설득력있게 표현해주는 융성기 고전주의 문학의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⁷⁾ 「헤르만과 도로테아」를 분석해 봄으로써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역사적 격변기에 고전주의자들이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 내지는 생활상을 살펴보

2) Ebenda, S.134 이하: “eine bürgerliche Umgestaltung Deutschlands”.

3)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론」에 관하여는, 고 창범, 「쉴러의 문학과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S. 333-358 참조.

4) Inge Stephan, a. a. O., S.135: “ein Vorbild für die eigene sittliche Vervollkommnung”.

5) Peter Szondi, *Theorie des modernen Dramas*, Frankfurt a. M., 1963, S.14, zitiert nach: Erika Fischer-Lichte, *Probleme der Rezeption klassischer Werke*, in: Karl Otto Conrady(Hg.), *Deutsche Literatur zur Zeit der Klassik*, Stuttgart 1977, S.126: “aus der Wiedergabe des zwischenmenschlichen Bezuges allein”

6) ‘아름다운 인간성’ 이상에 대하여는 작품 분석에 앞서 개별 항목으로 다루게 된다.

7) H. A. Korff, *Geist der Goethezeit I*, Leipzig 1966, S.40, 41.

고자 한다. 그러니까, 독일 고전주의 문학이 내세웠던 아름다운 인간성 이상이 작품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순수 학문적인 관심이 이 글을 쓰게 된 일차적인 동기인 셈이지만, 비(非)인간적인 자본중심의 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파괴를 위한 깨뜨림의 작업을 “억압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사회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⁸⁾는 생각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 서서, 보다 ‘소박’했던 시대의 이상향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II. 아름다운 인간성 - 쉐러의 이론을 중심으로⁹⁾ -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1794년부터 1805년까지의 괴테와 쉐러의 교류기에 한정하여 슈투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이나 낭만주의 문학과 구분하려는 경향과는 다르게, 슈투름 운트 드랑 세대와 고전주의 세대를 함께 “인민주의 세대”(die humanistische Generation)로 규정하고 있는 코르프(H. A. Korff)는 “자연적 인간성”(natürliche Humanität)과 “도덕적 인간성”(sittliche Humanität)과 “아름다운 인간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¹⁰⁾, 이 경우 자연적 인간성은 슈투름 운트 드랑 세대의 문학에서 표현된 인간성으로 청년기에 해당된다면, 아름다운 인간성은 도덕적 인간성의 단계를 거쳐 완숙기에 이른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간성의 최고 단계”¹¹⁾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성을 지닌 사람은 쉐러가 ‘아름다운 영혼’(schöne Seele)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관능과 이성, 기호(嗜好)와 의무가 잘 조화되어 있는”¹²⁾ 사람이다. 이는 “고귀함”(Erhabenheit)과 “아름다움”(Schönheit)을 함께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자연적 인간성과 도덕적 인간성 사이의 “화해적 종합”(versöhnende Synthese)의 성격을 띠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요행”(Glücksfall)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인간성 이상이 고전주의 시대에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神)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가 이 세상에 정체를 드러내면서부터,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태인 이외의 서양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부터 서양인들의 인생관은 이교도적 이상과 기독교적 이상, 세속적 이상과 종교적 이상, 땅의 이상과 하늘의 이상, 자연적 이상과 초(超) 자연적 이상이라는 양극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 두 이상을 종합시키려는, 즉, “육체와 영혼, 자연과 정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그들의 가장 부

8) 김치수, 「문학 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79, S. 31~34.

9) 이 항목은 코르프(H. A. Korff)의 저서 *Geist der Goethezeit* I, II와 고창범 교수의 「쉐러의 문학과 미학」에 힘 입은 바 있다.

10) H. A. Korff, a. a. O., S. 29~43 참조.

11) Ebenda, S. 40: “die höchste Stufe der Humanität”.

12) 고창범, 같은 책, S. 243.

13) H. A. Korff, a. a. O., S. 39.

리 깊은 동경이 되었다¹⁴⁾. 그런데, 18세기에는 이 양극 간의 긴장이 특히 강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칸트(Immanuel Kant)와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였는데, 헤르더는 미(美)를 “이해관계를 떠난 쾌적함”(interessenloses Wohlgefallen)이라고 보는 칸트의 규정과 셸러의 “유희개념”(Spielbegriff)에 이의를 제기할 만큼 편협한 예술관을 보였다¹⁵⁾.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칸트와 일치된 도덕적 예술관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상적인 도덕성보다 더 완전한, ‘정신’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그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상적인 아름다움”¹⁶⁾을 갈구하던 셸러는, 문학은 현실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헤르더의 전제사항을 배척하고, 이 헤르더의 만유주의적인 인생관을 창작으로 승화시킨 천성의 시인 괴테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움 그 자체의 이상적인 실재를 칸트의 도덕적 이상주의와 절충시켜서, 칸트의 윤리학에서 첨예화된 도덕적인 간성보다 더 완전한 아름다운 인간성을 담은 ‘아름다운 영혼’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¹⁷⁾ 요컨대, 아름다운 인간성 이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고전주의 문학의 한 이론가인 셸러에 의해서, 자연과 정신 사이의 균형이라는 영원한 생의 이상이 그 이론적 토대가 심화되고 고귀한 인간미가 가미됨으로써 재정립된 인류 공통의 이상인 것이다¹⁸⁾. 이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는 감성적 본능과 이성적 법칙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극히 이상적인 상태로서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술활동을 ‘유희’¹⁹⁾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셸러에게는 예술세계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코르프에 의하면, 셸러의 ‘미적 교육’의 목적은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력들의 “조화로운 협력”(harmonisches Zusammenspiel)과 관계가 있는 “총체성”(Totalität)의 부활에 있었다²⁰⁾. 분화화로 인해 일단 파괴된 이 총체성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美的 교육론」의 주제인 셈인데, 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 즉, 아름다운 인간성을 갖춘 이상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유희라고 하는 예술활동의 공간을 통하여, ‘속인’들이 이성과 감성의 지배로부터 동시에 자유로운 아름다운 인간성의 인물을 접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인간”(der sinnliche Mensch)은 “형식”(Form)에, “정신적 인간”(der geistige Mensch)은 “소재”(Materie)에 접근 시킴으로써 이성과 감성의 균형과 더 나아가 총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²¹⁾.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성’이나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움’ 등은 우연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는

14) H. A. Korff, *Geist der Goethezeit* II, S.274: “Harmonie zwischen Leib und Seele, Natur und Geist, Welt und Gott”.

15) K. O. Conrady, *Anmerkungen zum Konzept der Klassik*, in: K. O. Conrady(Hg), a. a. O., S. 18, 19.

16) H. A. Korff, a. a. O., S. 274: “das Ideal der Schönheit”.

17) 고창범, 같은 책, S.211~223.

18) H. A. Korff, a. a. O., S.273.

19) 셸러가 예술활동을 유희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고창범, 같은 책, S.252~279참조.

20) H. A. Korff, a. a. O., S.283. ‘총체성’ 개념은 미학상의 ‘아름다운 인간성’ 개념을 인성학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결과 생긴 개념이다.

21) Zitiert nach: Ebenda, S.285, 287.

불가능한 이상적인 것이지만, 진지한 현실이 아닌 유희로서의 예술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고귀한 예술가들이 “속인들”을 “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²²⁾.

한편,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성의 상태는 실제로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로써 적어도 미학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항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 “완성된 사회적 인간성의 인간”이 된 개인과 사회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²³⁾ 바로 이 때문에 아름다운 인간성을 다룰 때는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개인이 ‘완성된 사회적 인간성의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상적이고 인간적인 사회”²⁴⁾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코르프의 견해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늘의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볼 때, 개인의 문제점은 도의시한 채 사회 자체의 문제만이 전부인양 생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개인의 미적 교육은 사회, 나아가 국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적 교육의 개인 차원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다룰 때는, 조직의 힘이 개인의 힘을 압도하는 현대이고 보면, 특히 사회 조직도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고전주의자들의 이상이 고전주의 시대 이후의 정치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고전주의적인 “종합모형”(Synthesemodell)²⁵⁾을 거부해 버리기 보다는, 19세기 초 이래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주시하여 개인과 사회를 함축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분석·보완해 가는 것도 ‘창조적인’ 전통의 ‘부정’ 못지 않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Ⅲ. 시대적 배경

피테가 처음에는 “시민적 목가”²⁶⁾라고 했다가, 이 작품이 완성되기 바로 전에는 “서사적인

22) 고창범, 같은 책, S. 262.

23) H. A. Korff, *Geist der Goethezeit* I, S. 41: “der Mensch der vollendeten gesellschaftlichen Humanität”. 슈투름 운트 드랑을 피테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코르프는 이 운동의 본질을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항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바로 인간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인간성의 단계에서는 개인의 이상적인 성숙의 결과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개인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치되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Ebenda, S. 29~43 참조.

24) Ebenda, S. 41: “eine ideale, humane Gesellschaft”.

25) K. R. Mandelkow, *Wandlungen des Klassikbildes im Lichte gegenwärtiger Klassikkritik*, in: K. O. Conrddy(Hg.), a. a. O., S. 428, 429.

여기서 만델코프는 게르비누스(G. G. Gervinus)가 1835년에 행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모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순수 예술을 주창한 피테와 비교적 정치성을 띠었던 쉴러의 상반된 성격을 종합하여 “이 둘보다 더 큰(...) 제3의 것”(ein Drittes (...), das größer ist als beide)을 지향했다는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총체성 요구”(Totalitätsanspruch der Weimarer Klassik)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바로 이 모형으로써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26) Goethe an Schiller, Anfang Juli 1796, in: *Goethes Werke in 14 Bänden*, hg. v. E. Kunz [이하 G. W.], Bd. 2, S. 734: “eine bürgerliche Idylle”.

시²⁷⁾라고 불렀던 「헤르만과 도로테아」가 일반적으로 독일 근대 서사시로 불리우게 된 데에는,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요소의 힘이 컸다. 괴테 자신도 밝히고 있으며, 쉴러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포스(Voß)의 전원시 「루이제」(Luise)를 모델로 삼은 것이기는 하지만, 예술 기법상으로는 포스의 작품과는 전혀 다르며, 전체적으로 보면 “진정한 서사적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²⁸⁾. 이 작품이 완성된 해인 1797년 12월에 공동으로 집필한 「서사문학과 극문학」(Über epische und dramatische Dichtung)이라는 글에서, 서사문학과 전원시와의 차이점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서사시와 비극의 대상을 “순수 인간적이며, 의미 심장하고, 격정적인”²⁹⁾ 것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역사적 요소에 힘 입어서 전통 서사시의 한 특징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괴테와 쉴러는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이들의 글에 의하면, 서사문학보다는 극문학에 가까우며, ‘시민적 목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³⁰⁾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프랑스 혁명과 연결되면서 내용상 포스의 「루이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컨대, 주인공 헤르만과 도로테아의 행복한 결합은 한 가정의 화목을 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혁명으로 인하여 위태롭게 된 세상 질서를 위한 ‘영웅적인’ 투쟁의 승리를 뜻하게 되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운명적 차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전통 서사시의 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³¹⁾

요컨대, 배경으로서의 이 역사는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인물들인 헤르만과 도로테아를 결합시켜주는, 신뢰와 존경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삶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실하고 진심어린 사랑”³²⁾의 발생과 그 완성이라는 줄거리를 크게 부각시켜주는 비범한 상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 작품 속의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 혁명이 극도로 폭력화되었을 때의 사건이다. 이 점은 피난민이 라인강 건너 아름다운 땅을 떠나 독일 쪽으로 넘어 오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대목[I, 9-12]³³⁾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인권, 자유, 평등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다는 피난민 촌장(Richter)의 말[IV, 4-10]과, 처음에는 프랑스 군대가 우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얼마 후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지배권을 놓고 싸웠으며, 서로 죽이고, 새로운 이웃들을 압박했다는 역시 이 촌장의 말[IV, 21-54]에서 1792년 이후의 프랑스 혁

27) Goethe an Heinrich Meyer, 18. März 1797, in: G. W., Bd. 2, S. 735: "das epische Gedicht".

28) Schiller an Körner, 28. Oktober 1796, in: G. W., Bd. 2, S. 737: "im echten epischen Tone".

29) Goethe und Schiller, *Über epische und dramatische Dichtung*, in: G. W., Bd. 12, S. 249: "rein menschlich, bedeutend und pathetisch".

30) E. Busch, *Das Verhältnis der deutschen Klassik zum Epos*, in: W. J. Schröder(Hg.), *Das deutsche Versepos*, Darmstadt 1969, S. 406~407. 괴테 자신은 ‘시민적 목가’와 서사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쉬는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31) 부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요소와 함께 신화적 요소 및 경이적 요소를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전통 서사시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Ebenda, S.408, 409 참조.

32) A. W. Schlegel, *Hermann und Dorothea*, in: W. J. Schröder(Hg.), a. a. O., S.259: "biedere, herzliche Neigung".

33) 작품 「헤르만과 도로테아」는 아홉 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문 중의 [] 속에 표시된 로마 수자(I-IV)는 편 수를 지칭하고 아라비아 수자는 행(行) 수를 나타낸다.

명사(史)를 짐작할 수 있는데, 혁명 초기에 프랑스 귀족 및 성직자들의 피난지였던 독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혁명정부가 1792년 4월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이 형성되었으나, 1795년 프러시아가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맺어서 중립을 보장 받은 댓가로 독일 땅이었던 좌(左) 라인 지방을 프랑스에 할양했던 당시의 역사 사건³⁴⁾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좌 라인 지방의 독일 사람들이 혁명의 불길을 피하여 강을 건너 오던 때로서, 언제 그 불길이 이 쪽으로도 번지게 될지 모를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 점은 약사(Apotheker)의 말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피난과 혼란의 때에
 자기 집에서 혼자만 사는 자,
 두려워 떨며 매어 달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자,
 이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요즘 결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소.
 벌써부터 나도 자주 피난할 생각을 했고, 옛날 돈과 돌아가신 모친의 목걸이들 같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은 챙겨 두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아직까지 신성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II, 83-91]

O glücklich, wer in den Tagen,
 Dieser Flucht und Verwirrung in seinem Haus nur allein lebt,
 Wem nicht Frau und Kinder zur Seite bange sich schmiegen!
 Glücklich fühl' ich mich jetzt; ich möcht' um vieles nicht heute
 Vater heißen und nicht für Frau und Kinder besorgt sein.
 Öfters dacht' ich mir auch schon die Flucht und habe die besten
 Sachen zusammengepackt, das alte Geld und die Ketten
 Meiner seligen Mutter, das alles noch heilig verwahrt liegt.

평범한 시민으로 등장하는 이 약사의 말은 시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배경으로 암시되고 있는 프랑스 혁명사(史)가 지니고 있는 표면상의 의미는 이 같은 시대 상황의 급박성을 말해 주는 데에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시민들 중에서 나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약사는 상대적으로 시대 상황에 대해 초연한 다른 인물들과 대조되는 인물로, 청년 헤르만으로부터 자신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받고 있지만[II, 98-104], 상케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점은 헤르만의 말이 오히려 혼하지 않는 분별 있는 말이라고 칭찬하는 헤르만의 아버지의 말[II, 106]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약사

34) 이 점에 대해서는 김상태·임채원(역), 독일사(R.H. 멘브룩 著) (下), 서문문고 1973, S.12~13 참조.

의 사고 방식은 속된 인간의 비열한 사고 방식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으로 시대 상황의 급박성을 응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박성은 무질서를 드러 내 주는 피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직접 보고 와서, 구호품을 챙겨서 아들 헤르만으로 하여금 전하계 하느라고 집에 남아 있던 헤르만의 어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약사의 말[II, 102-150]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같은 “혁명으로 인한 질서의 위해(危害)”³⁵⁾는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로서 질서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 나게 해 준다.

IV.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코르프의 말대로 ‘아름다운 인간성’을 지닌 개인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 사회성의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이상적인 사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속의 ‘이상적인’ 인물이 그려지고 있는 작품의 경우, 실제로 어떤 인물이 ‘개인’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헤르만과 도로테아 만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헤르만이 ‘이상적인 개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헤르만은 말은 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I, 206-207], 부모님께서는 “겸손한 아들”(der bescheidene Sohn)[III, 1]이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씨 좋고 이해심 많은 청년”(der gute, verständige Jüngling)[III, 18]이다. 이러한 성품의 그이기에, 피난하기에는 독신남자가 가장 쉽다[II, 96]는 약사의 말과는 반대로, 불행이 닥치면 마음씨 좋은 아가씨들에게는 보호해 줄 남편이 필요하고 남자들에게는 마음을 밝게 해 줄 부인을 필요로 한다[II, 103-104]는 보기 드문 현명한 말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때이기에 오히려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말하자면, 감성과 이성, 기호와 의무 어느 한 쪽도 희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인간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생각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Besser ist besser)[II, 161]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을 지니고있는 헤르만의 아버지는 20년 전 한 도시를 쟁그리 태워 버린 큰 화재 사건의 불행을 딛고 시작한 한 가정[II, 108-157]의 가장으로서, 자력으로 “황금사자집 주인”(Wirt zum Goldenen Löwen)[I, 21]으로 출세한 사람인데, 아들 헤르만에게는 보다 더 쉽고 편한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살림의 시작이다 라는 생활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는, “전진하지 못하는 자는 후퇴하는 법이다”(Wer nicht vorwärts geht, der kommt zurücke!)[III, 66] 라는 조상들의 격언을 신봉하는 자로, 농민 계층이나 귀족과는 달리 18세기 중엽 이래로 시민계급이 보여 주는 ‘출세욕’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가난한 집 딸보다는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원한다[II, 189-191]. 게다가, 그는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대외적으로는 소심한 성격을

35) H. A. Korff, *Geist der Goethezeit II*, S.349: “Gefährdung der Ordnung durch den Umsturz”.

지니고 있는 아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모든 용기를 “날 마다 책망과 질책으로”(täglich mit Schelten und Tadeln)[Ⅲ, 56] 억압했으며, 술 기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말만 해대는[Ⅳ, 241-243] 사람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가부장적 제급체제”³⁶⁾ 속의 한 가부장이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굼뜨고 소심한”(nach außen langsam und schüchtern)[Ⅰ, 207] 헤르만이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이 제신 곳에서 그렇게 쾌활한 외모와 생기 넘치는 눈매를 한 “변화된 사람”(ein veränderter Mensch)[Ⅱ, 6]이 되어 자신의 결혼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 것은 소년을 성인으로 완성시켜 주는 “진정한 사랑”(wahre Neigung)[Ⅴ, 76]의 힘 때문이었는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피난민에게 구호품을 전하러 갔다가 매우 거대하고 힘이 센 황소 두 마리를 요령있게 다루며 마차를 끌고 피난의 길을 가고 있던 한 “착한 아가씨”(gutes Mädchen)[Ⅱ, 67]를 만나고 난 후였다. 헤르만이 자신의 배필임을 “한 눈에”³⁷⁾ 알아 보게 되는 도르테아를 만나게 되기까지는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되는데, 헤르만의 어머니가 구호품을 챙길 때 많은 시간이 걸린 점[Ⅱ, 13-15], 도르테아가 갖 몸을 푼 산모와 그 아이를 구하느라고 피난 행렬에 끼지 못하고 나중에 혼자 피난 행렬을 뒤쫓아 가게 된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헤르만의 어머니와 도르테아의 선한 성품이 낳은 우연이다. 헤르만의 어머니는, 거의 모든 주민이 피난민의 슬픈 행렬을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반 시간이 넘게 걸리는 큰 길까지 나간 사이에[Ⅰ, 1-7], 버리지 않고 챙겨둔 것들을 찾아 내어 쓸만한 것을 고르고, 포도주와 맥주를 조심스럽게 꾸러서, 아들로 하여금 마치를 이용해서 전하게 하려는, 인간을 고귀하게 해주는 “선한 일”(das Gute)[Ⅰ, 92]을 하다고 늦어졌던 것이며³⁸⁾, 최근에는 해산을 한 산모와 그 아이를 도와 주느라 뒤쳐지게 된 도르테아의 선한 행동은, 수레가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짐과 그 위에 타고 가던 늙은이와 병자들이 나뒀굴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Ⅰ,

36)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가부장적 제급체제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아버지’ 이니까 헤르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헤르만의 어머니의 말[Ⅳ, 237-238]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은 이 작품이 ‘고전적인’ 문학이 태어 나기에는 척박한 환경에서 쓰인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독일 고전주의가 태어 났던 척박한 환경 및 가부장적 제급체제에 대하여는, 장영태, “고전주의”, 『독일문학사조사』, 지명렬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대 출판부 1986, S. 180, 181 참조.

37) A. W. Schlegel, a. a. O., S.261: “in einem Blicke”.

38) 이 작품에서는, 두 번째 단계인 “유용한 일”(das Nützliche)과 최고 단계인 “선한 일”의 첫 단계로서 비교적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호기심[Ⅰ, 88-92]을 헤르만의 어머니 역시 가지고 있었지만[Ⅰ, 101], 그녀는 이미 최고 단계인 ‘선한 일’을 행할 만큼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스 고일렌(Hans Geulen)은 Goethes “Hermann und Dorothea”(in: *Jahrbuch des Freien Deutschen Hochstifts*, Tübingen 1983, S.1-20)에서 헤르만이 도르테아를 만난 것은 “경이롭고 서사적인 동시에 反語的”인 운명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르테아의 선한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헤르만의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를 오히려 “편협함”(Beschränktheit)이라고 해석하는 등 작품 자체의 충분한 분석을 가하지 못한 데서 온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137-146], 급박한 피난민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그녀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었기에 선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Gottes Hand und Finger)[II, 52]이 닿았던 것으로, 이 우연은 종교적인 성격을 띤 “경이로운 일”(das Wunderbare)로서 이 작품의 서사시적 성격을 더해 주는 또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³⁹⁾.

이렇듯 경이로운 서사적 우연에 힘 입어 품게 된 ‘진정한 사랑’ 때문에 변화된 아들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헤르만의 아버지는, 함께 포도주를 마시던 마을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아들 스스로 꺼낸 결혼 이야기이기에, 당장 결혼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 아들 헤르만은 자기 보다는 더 잘 살게 해 주려는 강한 욕심 때문에, “농부 출신의 아가씨”(ein bäuerisches Mädchen)[II, 263]보다는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지참금도 많은 신부[II, 170]를 원하는 그는 날로 번창해 가는 이웃 부자 상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한다[II, 189-191]⁴⁰⁾. 그러나,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헤르만은 “겸손하게”(bescheiden)[II, 197] 거절한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세째 딸 민헨(Minchen)이 착한 아이라는 점과 헤르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그 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자, 이번에는 “신중하게”(bedenklich), 지난 부활절 때 당한 수모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녀의 노래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II, 243, 244]고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털어 놓는다. 그제서야 아들의 마음을 눈치 챈 아버지가, 아들은 “명예욕”(Ehrgefühl)[II, 254]이 없어서 틀렸다고 하며, 농부 출신인 “그 시골뜨기”(die Trulle)[II, 264]를 집에 들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한편, 격노하시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채 피해 나온 “겸손한 아들” 헤르만이지만, 자신이 택한 도로테아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어도 알고 싶지 않고 반대하시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die entscheidenden Worte)[IV, 225]에 충격을 받고 절망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화해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매우 심각한 갈등”⁴¹⁾이 생긴다.

그러나, 이 갈등이 위착하고 있는 상황이 ‘이상적’이어서, 이 갈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된다. 명예욕과 진취성이 없다고 화를 내는 아버지 곁에는 자신의 “보잘 것 없는 悟性”(geringer Verstand)[V, 84]이나마 이웃을 위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약사와 성서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밝은 그 도시의 자랑 거리인 “분별 있는 고귀한 성품의 목사님”(der edle verständige Pfarrherr)[I, 78-83]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분별있는 현명한 주부”(die kluge verständige Hausfrau)[I, 22]이자, 아들의 감정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만큼[IV, 207,

39) E. Busch, a. a. O., S.407~409.

40) “그 지역 최초의 상인”(der erste Kaufmann des Orts)[I, 55]인 이 사람이 그 지방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음을 작가가 암시하고 있는데[I, 53~58], 이런 상인과 사돈이 되어, 그 지역 최고의 인사들이 모이는 가정을 꾸미고 싶어 한다[II, 272].

41) H. A. Korff, *Geist der Goethezeit* II, S.347: “ein sehr ernsthafter Konflikt”. 이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해결되는가 하는 점은 여러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봉건제도 이래의 가부장적인 계급체계가 오래 존속했기 때문에, 18세기 말 경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었기에 그렇다. 이 점에 대하여는 註36 참조.

208] 아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풍부한 “분별 있는 좋은 어머니”(die gute verständige Mutter)[IV, 111, 229]인 헤르만의 어머니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리를 피한 아들을 찾아 나선, 성실한 살림꾼이자 모성애 많은 어머니에 대한 64행에 걸친 긴 묘사 대목은, 6 운각의 詩句(Hexameter)로 된 이 작품이 서사시 양식임을 말해 주는 전형적인 대목이라고 평가될 만큼⁴²⁾ 작가가 관심을 기울인 대목으로, 이런 어머니 상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⁴³⁾

어머니는 우선 자신의 남편인 헤르만의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슬기운이 있어서 아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지만, 헤르만의 마음을 사로 잡은 그 아가씨가 착하고 암전하다면 “비록 가난할 지라도”(obgleich arm)[IV, 235]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풍부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서, 아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멀리 배나무 밑 차가운 돌 벤취에 홀로 앉아 건너편 산을 응시하며 울고 있는 아들[IV, 58-64]을 찾아 가서, 헤르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피난 중에 있는 도로테아를 신부로 삼고 싶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충격을 받은 헤르만은 어머니도 민혜를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로테아를 택한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속마음을 감춘 채 군에 자원하여 진취적인 사나이가 되겠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평소에 아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 이상으로 민감한 아들의 상태를 보고 [IV, 208] 아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을 간파하여 마침내 아들의 속마음을 알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IV, 146-228]. 이렇듯 남편과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위 처럼”(wie Felsen)[IV, 229] 맞서 있는 두 남자를 접근시킬 수 있었다.

우선 아들을 찾아 용기를 갖게 한 뒤에 손을 잡고 남편 앞에 세우면서, 때마침, 순수하고 변함 없는 침착한 생각과 바른 오성과 인내를 겸한 “침착한 시민”(der ruhige Bürger)[V, 19]도 진취욕을 가진 사람 못지 않게 귀중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꾸준한 수고와 장차 그가 택하게 될 신부감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목사의 말[V, 6-38]이 끝나자, 자기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 헤르만이 신부감을 직접 골라서 집으로 데려 오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V, 41-53]. 사실, 헤르만의 아버지도 자기 부인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⁴⁴⁾,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목사와 약사가 참견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된다[V, 109-118].

42) G. W., Bd. 2, S.752 참조.

43)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대화체가 배제되고 서사적인 조화에 걸맞게 형성된 웅변조의 말을 위주로 한 생동감 넘치는 전개”(die volle lebendige Entfaltung hauptsächlich durch Reden, die mit Ausschließung dialogischer Unruhe und Unordnung der epischen Harmonie gemäß umgebildet werden)(A.W. Schlegel, a. a. O., S.741, 742)는 서사시의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로서, 이 작품에서도 6운각의 첫구를 위주로 하여 구성된 인물들의 정제된 웅변조의 말이 대부분이며, 인물에 대한 묘사가 필요할 때는 대개 그에 합당한 형용사들(klug, verständig, würdig, gut, gesprächig, trefflich, menschlich, herrlich 등)을 사용함으로써 긴 묘사를 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길게 묘사하고 있다.

44)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헤르만의 유일한 결점은 밖에서 굶뜨고 소심하다는 점인데, 헤르만이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 왔을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헤르만의 아버지가 아들을 못마땅해 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I, 206-210].

이렇게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를 바꾸기까지는 진정한 이웃인 목사와 약사의 역할도 컸다. 자기 부인이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아들을 찾으러 나간 뒤에 [Ⅲ, 45-60], 아들을 찾아 돌아올 때까지 이들은 헤르만의 아버지와 같은 화제를 놓고 대화를 하여 격앙된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킬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V, 56-88], 실제로 그 아가씨가 헤르만에게 잘 어울리는 훌륭한 신부감임을 알아 낸다[V, 183-Ⅵ, 232].

당장 그 아가씨를 모시러 가자는 목사의 말에 소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심성을 보이며 헤르만은 망설인다. 부당하게 감수하게 된 가난 때문에 오히려 부잣집 청혼자 앞에서 떳떳해 할 만큼 훌륭한 아가씨라는 점, 마음씨 좋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큼 아름다움과 덕성을 갖추고 있는 아가씨라는 점 때문에 청혼을 거절당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Ⅵ, 235-250]. 그러나, 약사가 중매장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자 자신이 직접 청혼하겠다고 당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먼저 가서 알아 본 결과를 부모님께 전하게 함으로써 부모님의 염려를 덜어 드리려는 효성도 보여 준다[Ⅳ, 287-289].

그러나, 막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물을 뜨러 온 도로테아를 만나게 되어, 홀로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묻는 도로테아에게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소!”(Deinetwegen kam ich hierher!)[Ⅵ, 55]라고 “더듬거리며”(stotternd)[Ⅵ, 72] 말했을 뿐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 도로테아가 헤르만의 더듬거리는 말을 다 들어 보지도 않고, 헤르만의 부모의 “하녀”(Magd)[Ⅵ, 76]로 일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고는 거기에 쉽게 응한다. 사실 도로테아도 처음 헤르만을 만났을 때부터 즐낀 그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으며, 우물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 온 천사를 만난 듯 기뻐하며 [Ⅸ, 151-155], 헤르만의 집에서 자신을 하녀로 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 자기가 그 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다면 혹시 그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Ⅸ, 158-159] 쉽게 응했던 것이다.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거울 처럼 잔잔한 우물의 수면을 통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는 둘 다 “달콤한 욕망”(süßes Verlangen)[Ⅵ, 107]에 사로 잡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도로테아의 가슴 속 깊이 간직된 자신을 향한 연정을 헤르만은 감지해 내지 못했다[Ⅸ, 216-217]. 그 결과 청혼하러 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털어 놓지 못한 채, 그러나 미래의 행복한 결합에 대한 희망을 안고, 금방이라도 뇌우가 쏟아질 것 같은 석양 무렵 헤르만의 집을 향해 출발한다. 이 행로를 노래하고 있는 여덟 번째 노래는 비극의 여신이라는 뜻을 지닌 표제 멜포메네(Melpomene)와 “지는 해”(die sinkende Sonne)[Ⅵ, 1], “곧 쏟아질 듯한 뇌우”(das drohende Wetter)[Ⅵ, 5]가 의미하듯이 비감하기까지 한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두 사람의 마음과, 특히 도로테아가 끼고 있던 “금반지”⁴⁵⁾까지 보게 된 헤르만의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분위기

45) “goldener Ring” [Ⅵ, 101]. 이는 약혼이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반지를 보게 된 헤르만은 깜짝 놀랐다[Ⅵ, 101-102]. 그러나, 그 상대는 프랑스 혁명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프랑스에

는 어둡고 초행인 길을 가다가 발목을 다친 도로테아가 아픔을 감추며 던진, 집에 들어 갈 때 문지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목을 빼면 불길한 징조다[VII, 100-101]라는 농담조의 말에서 더욱 고조된다.

이 불길한 징조는 헤르만과 도로테아가 집안에 들어 서자마자 현실화되었다. 도로테아의 행실에 대해서는 먼저 집으로 돌아 온 목사와 약사를 통해서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던 헤르만의 아버지는, 아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큰 키를 한 도로테아를 보자 크게 만족하여, 아들도 자기 처럼 여자 볼 줄 아는 눈이 있음을 칭찬하면서, 신부감을 잘 골랐다고 말했다. 도로테아는 피난 중에 있는 고아나 다른 없는 존재로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소녀”(ein armes Mädchen)[IX, 162]이기에 고백할 수 없는 연정을 헤르만에 대해 품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그 말에 강한 반발을 보인다[IX, 93-105]. 이렇게 흥분된 상태의 도로테아로부터 현명한 목사가 헤르만에 대한 연정을 고백받는다[IX, 134-181]. 산모와 그 아이를 그들의 가족과 만나게 해 줌으로써[VII, 129-144] 자신이 할 일이 일단 끝났으며, 고향에 일찍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기도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는 짐이 될 수 밖에 없는 피난 생활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VII, 153-155], 그러나 특히 헤르만에 대한 연모의 정 때문에 하녀가 되어서라도 헤르만 곁에 있고 싶어서 쉽게 따라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목사 때문에 이런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그녀는 이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돌발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도로테아의 마음을 직접 듣게 된 헤르만이 사정 이야기를 하고 직접 청혼하게 됨으로써,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 결국 결혼 문제로 인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무너질 뻔 했던 한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더욱 튼튼해진다. 이 경우 특히 아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결혼이 성립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 것은 이 작품이 혁신적인 것이었음을 말해 주는데, 독일이 그 당시까지 중세 이래의 가부장적 제급체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V. 맺음말 : 아름다운 인간 관계

지금까지 농업과 상업을 겸하는 작은 도시의 가정에서 아들의 결혼 문제로 인해 야기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에서 융성기 독일 고전주의 문학이 내세웠던 아름다운 인간성 이상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A. W. 슐레겔이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 독일의 시대상황은 회람인들의 영웅시대와는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상황에 걸맞는 서사시라면 公的인 활동보다는 私生活을 더 많이 다룰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귀찮은 관습이나 심한 궁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당시의 중간계층에서 인물들을 고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⁴⁶⁾. 그러나, 당시의 독일 중산층에 대한 작가 피테의 희망 사항이

서 죽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IX, 256-296] 헤르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

46) A. W. Schlegel, a. a. O., S. 256, 257 참조.

요 요구 사항이 바로 이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은 당시 독일 중산층의 ‘존재’(Sein)라기 보다는 작가가 바라고 있는 ‘당위’(Sollen)로 보는 것이 옳다 하겠는데, 이렇게 보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산층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이라고 평가되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들”(die Beziehungen der Menschen zueinander)⁴⁷⁾이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 작품에 있어서 갈등의 장본인인 아버지와 아들 헤르만이 아무런 결점도 없는, 코르프의 말을 빌리자면, “개별적인 법칙”(individuelle Gesetzmäßigkeit)이 천성적으로 “생의 보편적인 법칙”(allgemeine Gesetzmäßigkeit)에 종속되어 있는, 피가 없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가 넘치는”(blutvoll) 사람들이라는 점이다.⁴⁸⁾ 이는 곧 이 작품에 나오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소심성을 보이고 있는 헤르만과 체세욕을 보이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헤르만의 경우에는 따뜻한 어머니의 관심과 아름다운 도로테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써,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조언과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부인의 내조에 힘입어 극복됨으로써, 이 작품 속에 아름다운 인간성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아름다운 인간성도 그 꽃을 피울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족적 해방 투쟁에 비교적 깊이 관련된 작가”⁴⁹⁾로 평가되는 쉴러가 당대 예술품의 “절작”(Gipfel)⁵⁰⁾이라고 이 작품을 격찬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다.

물론 작가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질서가 위험에 처해 있는 시대에 ‘영웅적’으로 자신보다 훨씬 가난한 피난 중의 여자를 반려자로 택한 ‘감성’과 ‘이성’ 사이의 조화를 보이고 있는 ‘중산층’ 출신의 헤르만과 그 가족 및 이웃이 엮어내는 “독일의 작은도시 생활의 순수 인간적인 면”⁵¹⁾을 골자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술이라는 유희 공간 속에서 제시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I, 15]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듯 ‘영웅적’으로 대처

47) Erich Trunz, Nachwort zu Hermann und Dorothea, in: G. W., Bd. 2, S. 749.

48) H. A. Korff, a. a. O., S. 345. 코르프에 의하면, 고전주의자들이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지칭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개별적인 법칙과 보편적인 법칙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본래 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die im Grunde vernünftigen Naturen)이 두 법칙 사이의 긴장을 최소화할 때, 말하자면, 개별 법칙에 대한 보편 법칙의 우위성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코르프는 이 작품에 나오는, “피없는 모범인간”(blutlose Mustermenschen)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망과 개성들이 상위의 보편사상이나 “가족정신”(Familiensinn)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피가 넘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제어된 그들의 피”(die Beherrschtheit ihres Blutes)라고 말하고 있다. Ebenda, S. 345~347 참조.

49) K. R. Mandelkow, a. a. O., S. 428: “der dem politischen und nationalen Befreiungskampfe enger verbündete Autor”

50) Schiller an H. Meyer, 21. Juli 1797, in: G. W., Bd. 2, S. 738.

51) Goethe an H. Meyer, 5. 12. 1976, in: G. W., Bd. 2, S. 734, 735: “das reine Menschliche der Existenz einer kleinen deutschen Stadt”.

할 수 있기를 바라는 ‘教化’의인 성격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⁵²⁾. 그러나, 이 작품을 읽어 보면, 헤르만의 ‘영웅적’인 선택보다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중재역할, 이웃인 목사와 약사의 우정어린 봉사,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용기와 아량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키워 내는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의미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이 작품을 읽는 이의 현주소인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머니’, ‘이웃들’, ‘아버지’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쁘다 보니 자식에 대해서는 용돈만 넉넉하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던 부모가 자기 방에서 자살한 외아들을 열 하루 만에야 발견하고는 뒤늦게야 통곡했다는 1986년 4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나, 노상강도를 잡아준 운전사가 관할지역다툼에 휘말려, ‘용감한 시민상’을 타기는 커녕, 꼬박 11시간 동안이나 시달리다가 손님을 태우지 못해서 택시회사 측의 요구대로 다시는 그런 ‘맹추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시달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1986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말해 주고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참울성이 부족하고 늘 극단적인 것만을 생각하기에 방해물에 걸리기만 하면 넘어지기 잘하는 남성들을 재치 있게 인도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IV, 148-151] ‘이상적인 여자’가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하다. 또한 헤르만의 아버지가 보여 주고 있는 ‘長’으로서의 역할 역시 우리의 호감을 사기에 넉넉하다. 여자들이란 아이들과 같아서 늘 칭찬해 주기만을 바란다고 못마땅해 하지만[III, 62-64], 슬기운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지만, 슬기운이 가시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기에 자신의 부당함을 깨달을 줄도 알고[IV, 246-247], 또한 부인의 충고[V, 41-53]를 받아들일 줄도 아는 아버지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도, 바로 이같은,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충고가 옳다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지닌 ‘가장’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까지, 피테의 「헤르만과 도로테아」에서 용성기 고전주의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 이상이 어떻게 작품화되고 있는지, 이런 아름다운 인간성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암시적으로나마 알아 보았다. 이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非歷史的인 삶이요, 인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려는 노력은 “참되고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내려는 超歷史的인 투쟁”⁵³⁾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문학의 근본 정신으로 보는 ‘부정의 미학’ 역시, 이같은 인간 본연의 이상향에 대한, 모순으로 가득 찬 현대를 사는 인간들의 ‘감상적인’(sentimentalisch) 동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이 작품이 보여 주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우리는 최소한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원동력으로

52) 첫째 노래의 표제인 운명파 관심(Schicksal und Anteil)이 말해 주고 있듯이 피난민들의 운명에 대한 모범적인 관심, 즉,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건에 지혜롭게 참여하는 모범을 피테는 독일인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G. W. F. Hegel, *Berliner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n: G. W., bd.2, S.744와 A. W. Schlegel, a. a. O., S.260 참조.

53) Herbert Cysarz, *Klassik*,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 1, S.855: “übergeschichtlicher Kampf um den wahren und vollen Menschen”.

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향수”⁵⁴⁾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고전주의 문학 이론에 있어서의 자율적 예술론의 위치를 “사회적 소외의 결과이며 동시에 이 소외를 지양하려는 성찰의 장소”⁵⁵⁾였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54) 이성원, “프레드릭 제임슨의 문학비평”, 「외국문학」 3, 1984, S. 334.

55) 김수용, “고전주의 문학 이론”, 「독일문학사조사」, 지명렬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대출판부, 1986, S. 234.

Zusammenfassung

Die schöne Humanität in Goethes Werk *Hermann und Dorothea*

Song Sung-hoe

Die Französische Revolution hatte grundlegende Bedeutungen auch für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Literatur. Die deutsche Klassik als eine Hauptrichtung unter drei damals entstandenen Hauptrichtungen hat die sittliche Verbesserung des einzelnen wie des Volks als die unbedingte Voraussetzung des allmählich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 begriffen.

Dieser Arbeit liegt das Absicht zugrunde, zu untersuchen, wie die schöne Humanität als das Programm der Hochklassik in einem klassischen Werke verkörpert wird, und im Vergleich mit diesem Ideal einer naiveren Zeit den Zustand unserer Zeit, wenn auch andeutend, zu diagnostizieren.

In der schönen Humanität, nach Schiller, befindet sich die schöne Seele, die so organisiert ist, daß Pflicht und Neigung inhaltlich in ihr zusammenfallen und folglich vollkommene Harmonie besteht zwischen dem, was sie will, und dem, was sie soll. Diese Humanität zeigt sich praktisch im schönen Verhältnis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als die vollendete gesellschaftliche Humanität.

Goethes Werk *Hermann und Dorothea*, das wegen des zeitgeschichtlichen Zustandes notwendig idyllische Charaktere hat, übernimmt aber einen Zug des alten Epos, wobei es dafür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viel zu verdanken hat. Das Motiv von der Gefährdung der Ordnung durch diese Revolution läßt die Schönheit der Ordnung hervortreten.

In diesem Werk entsteht ein unter anderen Umständen sehr ernsthafter Konflikt zwischen der Hauptfigur Hermann und seinem Vater um Hermanns Heirat. Aber mit Hilfe der freundlichen Nachbarn, Apotheker und Pfarrer, besonders der guten verständigen Mutter und Hausfrau zugleich, löst sich dieser Konflikt, und damit wird Hermanns schöne Humanität zur vollendeten gesellschaftlichen Humanität verwirklicht.

Im Vergleich mit diesem klassischen Ideal fehlen unserer Zeit diese gute Nachbarn, diese gute verständige Mutter und Hausfrau zugleich, und dieser Vater, der den echten Mut hat, seinen Fehler anzuerkennen und wiedergutzumachen.

Schließlich sollen wir diese idealen Beziehungen der Menschen zueinander wenigstens als das 'Heimweh nach einer Utopie' als die Triebkraft für die erwünschte Verbesserung richtig bewerten können.